

『의원연구단체 남구리엔지니어링』

2020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ㄷ 활동기간: 2020.10월 ~ 2020.12월
- ㄷ 연구단체 활동 마감일: 2020.12.30
- ㄷ 대표의원: 강건우



목차

1

『의원연구단체 남구리엔지니어링』
연구활동 계획

2

활동1. 도시재생-용호대가족

3

활동2. 남구 교육-토론회

4

활동3. 도시재생&임팩트투자

5

활동4. 간담회

6

활동마무리

7

첨부자료 (전문가 자문 원고 및 자료집)

『의원연구단체 남구리엔지니어링』

연구활동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남구 리엔지니어링
연구과제명	남구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남구형 정책으로 발굴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 및 주민참여형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연구
연구목적	남구 주요현안 사업과 앞으로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남구의 사업과 정책에 담기 위함
연구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자문 ○전문가 강연 ○주민참여형 토론회 개최 ○연구단체 위원 간담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형 현안사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 및 강연을 준비함 ○현안 별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열어둠

활동1. 도시재생-용호대가족

목적	남구현안사업에 대한 남구형 정책발굴 (도시재생)
날짜	2020.10.27
장소	남구의회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의원연구단체 회원 및 자문전문가2인
활동사항	-도시재생 전문가 이바구캠프 전문가 초대 자문 전문가 자문 및 원고료 지출 -이바구캠프 사업초기 스토리 및 지역주민상생 사례를 통한 남구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도출 용호대가족 프로젝트 중심 사례 분석



활동2. 남구 교육-토론회

목적	남구 주민 교육 토론회
날짜	2020.11.20
장소	남구청 1층 대강당
참석대상	남구주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남구관내 초·중학교 교장 및 의원연구단체 회원 (80여명)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활동(주민의견수렴 공론화 활동) -남구 주민 교육 토론회-남구 다행복지구 사업 어떻게 추진할까 -전문가 강의 및 원고료, 토론회 홍보예산 및 대관료, 토론회 자료집, 활동추진 간담회



활동3. 도시재생&임팩트투자

목적	남구현안사업에 대한 남구형 정책발굴(도시재생과 사회주택 그리고 임팩트투자전문가 자문간담회)
날짜	2020.12.28
장소	남구의회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의원연구단체 회원 및 자문전문가2인 남구청 담당부서 관계자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그리고 임팩트투자전문가 자문간담회 -전문가 강의 및 원고료, 간담회 -문현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문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부산시관련 사례 및 사회주택 투입을 통한 청년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모델 연구 -남구미래 사업추진시 반영간으한 임팩트투자를 통한 남구민의 의해 사업이 반영되고 견제될 수 있는 방향 검토



활동4. 간담회

목적	의원연구단체 중간활동 점검 및 연구사업 선정 및 방향토론 간담회
날짜	1차 2020.11.20 , 2차 2020.11.25 3차 2020.12.03 , 4차 2020.12.08 5차 2020.12.14
장소	남구의회
참석대상	의원연구단체 회원 및 자문전문가2인 남구청 담당부서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연구세부내역 결정 -전문가 초대 강연 및 자문 관련 의견 공유 -남구형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 공유



Report 1.

도시재생이야기-마을공동체 하나의 마을

○ 도시재생 이야기의 전문가 자문으로 회차를 나누어 진행 하며 남구의 도시재생사업 사례에 대한 주민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의 스토리에 초점 맞춤

○ 특히 마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재생이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지역의 주거 안정 및 편의를 이끄는 사업 진행후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마을의 생기를 불어주는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 하여 지역구 의원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위원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남구형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회의를 간담회로 진행함.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에 대한 이해 정립

- 재개발, 재건축사업추진 불발, 사업타당성 문제로 지역개발이 도태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터전을 잃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발굴함.

○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선정 후 지역의 현안 및 의견에 대한 공유

- 마냥 내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개선 및 주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주민학교/ 주민대학)등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용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스토리공유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적인 사업방향들에 대한 공유 및 지역별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사례 검토

(마을센터의 역할, 유스호스텔로서의 변호, 마을센터의 카페운영,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조 후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이용사례등)

○ 남구 문현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이해 및 문현동 사업에 대한 방향성 논의

○ 노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방향 논의

-청년주거빈곤 문제로 접근 ,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의 청년기숙사 및 스타트업 사업장 공유오피스 사업 추진

-1인가구 주택단지 구성 및 집을 공유하는 비영리 법인 운영사례 접목 하여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국 내외 사례 분석 및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논의

상임위원회별 활동 및 5분자유발언, 담당부서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소통과 공유의 성공모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의원들의 소임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함

Report 2.

도시의 이름

○ 도시재생 이야기의 전문가 자문으로 진행된 내용

- 도시의 이름에 대한 논의중 동서남북 방위형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면서 오는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늘 필요하다

-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등 지역은 이름을 가지고 자체적은 브랜드화 하여 관광사업 및 주거특구로서 매력을 느끼도록 어필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 남구도 방위형 이름과 함께 오륙도와 유엔과 평화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을 검색했을 때 쉽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임에 입각하여 남구도 하나의 자치도시로서 브랜드화 되어 설명하지 않아도 부산 하면 떠오르는 지역명으로 남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논의해 봄

○ 사례 (인천남구->인천 미추홀구)

- 2016년 인천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히 내용으로 방위명칭의 지역명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부산 북구 전재수 국회의원과 정명희 북구청장도 동일한 내용의 언급을 한 적이 있음

정체성이 담긴 도시의 이름이 가진 필요성 및 시대적 요구임에도 막대한 예산 및 주민설득 및 초기의 불편함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자치 브랜드 시대임을 증명하는 사례 공유 및 방향 논의

- 도시의 방위에서 따온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치적 지정학적 가치가 가지는 이름으로 변모 시) 자치브랜드로 도시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로 인한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 축제의 이름

- 전국의 많은 도시에 남구가 있음 그러나 특성화된 구의 이름으로 변모한다면 관광 및 각종 공모사업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들이 곳곳에 존재함

- 관광상품의 개발 시에 특화된 사업모델로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변모 할 수 있는 기회 포착이 가능함

- 부산을 리드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 할 수 있음

- 자치브랜드화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며 의미없는 이름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자치브랜드화가 가지는 가치가 큼을 직시.

○ 도시의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등에 대한 논의

-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 역사적 가치 및 자연환경을 강조하는 방법등이 논의

-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이 최우선이라고 결론

Report 3.

다행복 지구_남구의 교육

- 남구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와 간담회 및 회의 참석등으로 사업추진 결정함

- 남구의 혁신교육의 필요성 및 부산남부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한 지역 초 중 고에 교육예산 마련 및 열린교육을 통한 코로나시대 부족한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과 공론화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 제시

- 남구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초 중 학교 학부모 및 남구 관내 초 중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자로서의 강연, 장학사로서, 학부모로서, 지자체의 입장을 보는 자리를 마련함.

- 연구단체 위원이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도록하여 의회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의견 공유

- 관내 혁신학교 사례 공유를 통한 혁신학교는 아니더라도 다행복지구 선정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논의가 향후 2차 토론회 운영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민 관 학의 주기적 간담회 및 남구청의 예산마련 의지, 사업방향에 대한 구체적 공간 마련 등이 절실함

Report 4.

청년주거-사회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도권중심 및 도시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힘든현실을 극복하기위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논의진행

○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급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 리츠사업의 도입으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례 공유

- 빈집활용, 주민인입, 주거지분위기 조성 및 지역의 상권발달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수 있음

- 민 관 학이 연계하여 대학이 많은 남구의 경우 별도의 사업모델이 가능함

○ 남구형 사회주택 아이디어

- 넓은 고시원, 넓은 원룸의 매입을 내에서 주도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남구형 공공임대주택이 1차 입주하여 빌라의 공공임대주택화를 통한 공동체 구성사례 공유

○ 사회주택 국내외 사례

-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독일의 세입자가 살기 편한 사회 사례,
-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주택

이것이 문제로다
#청년주택반대



- 오스트리아의 경우 시민의 60%이상이 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에 거주함,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사회적 차별이 없기에 많은 시민들이 사회주택이용에 참여함, 저렴한 임대료 장기간 거주허용 등의 규제완화로 사회주택주변의 상권발달이 사회주택을 도시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음

-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에 대한 공급부족 현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은

- 네덜란드: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로 사회주택보급도입

- 영국: 인구과밀화와 도시의 노동자 집중으로 주거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에는 대량으로 주택공급을 했다면 지금은 수요에 맞게 사업방향을 전환함

- 커뮤니티홈 운영 및 임차인 참여제도 도입

○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좁은 공간으로만 구성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회간접시설관의 접근성 교통편의성등이 고려된 지역에 도입이 필요함, 삶의 만족을 위한 주거형태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함

주요 국가 사회주택 공급 비율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영리, 개인
네덜란드	0.0%	0.0%	81.0%	19.0%
오스트리아	0.0%	32.8%	67.2%	0.0%
덴마크	0.0%	3.7%	96.3%	0.0%
프랑스	0.0%	0.0%	100.0%	0.0%
영국	0.0%	43.7%	56.1%	0.0%
아일랜드	0.0%	89.6%	10.4%	0.0%
폴란드	2.7%	80.4%	7.9%	9.0%
대한민국	67.7%	16.9%	0.0%	12.4%
미국	0.0%	22.2%	3.1%	68.7%
일본	0.0%	100.0%	0.0%	0.0%

※ 출처: 사회주택의 국내외 사례분석(대교출판사) 연구팀(2018)

Report 5.

임팩트투자자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남구미래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남구에 도입할 수 있는 사례로 김근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연구내용이 정리되어 첨부함.

복지, 문화, 환경, 청년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치단체는 예산적 한계와 절차문제에 부딪힘,

○ 임팩트 투자란? 기존 자선활동과 공공예산만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인식 하에 민간 자본과 창의성 및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임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투자형태임

○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 첫째, 예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행정비용이 줄 수 있음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예산문제를 민간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됨

- 둘째,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성과 달성 시 원금과 이자 수취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가용재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공익활동에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함

-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에 개선 가능성이 높음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지자체, 민간투자자, 운영기관, 수행자, 사업평가자 등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함

- 넷째,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음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공공안심상가"를 연계하여 민간투자를 받아 낙후된 곳이 아닌 대학가나 역세권 인근 지역 상가를 매입하여 적은 임대료로 건물의 관리와 민간투자의 이자를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음, 지자체가 공공안심상가를 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격은 인상되고있음, 이러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연계한다면, 사전에 민간투자자로 매입을 한 후 지자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공간의 확보와 사업의 진행은 청년창업가나 신생기업을 유치하는 적극적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에 대한 예산 투입에대한 반발예상

외국의 사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경우 영국에서 시작하여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 세계의 각국에서 이뤄지고 이는 상황임, 국내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 주식회사 남구미래 용역보고가 있었음

지금까지 주식회사 남구미래 준비는 수익성 전제하에 창업 투자지원, 청년벤처 육성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임팩트 투자회사의 운영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를 비롯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남구미래의 운영방식을 사회적 책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것임